

祝 辭

趙 軫 奎

전 경희의료원장

을지병원 이비인후과장

臨床耳鼻咽喉科의 學術誌 發刊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祝賀와 激勵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더없이 기쁨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釜山 慶南地方의 耳鼻咽喉科醫가 學術交換을 위하여 처음으로 모임을 가진 것은 1956年 겨울이었습니다. 釜山大學校 醫科大學 舊學生教室의 초라한 木造建物이 바로 요람지였습니다. 參席人員은 10名內外, 內容은 貧弱하였고 그 實相은 想像할 수 있을 것입니다. 微弱한 모임은 그래도 中斷없이 每月 지속되었고 서로의 親交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當時를 돌이켜 보고 35年의 歲月이 흐른 오늘의 狀況과 比較할 때 實로 感慨가 無量합니다. 學問의 水準, 耳鼻咽喉科醫의 數, 診療의 充實性, 教育의 內容, 相互間의 協力等 今昔之感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의 學問과 診療에 대한 熱誠과 努力, 協心과 團結等の 所産이라고 確信합니다. 그러므로 本 學術誌의 發刊을 眞心으로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現代醫學은 疾病의 退治와 豫防을 위하여 不斷의 研究와 診療에 精進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醫療機器와 藥品의 適用, 診斷法과 治療法의 革新, 醫學教育과 國民保健教育의 向上等으로 人類共同의 所望은 部分的으로 成就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疾患은 우리 社會에서 사라졌고, 國民의 平均壽命은 延長되고 있으며 보다 快適한 삶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醫學史에서 耳鼻咽喉科의 貢獻은 至大한 것이어서 後世에도 크게 記憶될 것입니다.

最近에 이르러 釜山 慶南地方의 耳鼻咽喉科水準이 높이 評價되어 注目을 끌고 있다는 事實은 極히 多幸스러운 일이고, 醫學의 窮極의인 目標가 疾病으로부터의 人類의 解放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매우 所望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現實속에서 醫學情報의 交換으로 相互補完, 切磋琢磨하는 學問의 마당을 마련하여 國民保健의 向上, 나아가 人類福祉의 增進에 寄與하고 무언가 後學에 보탬이 되는 이룸을 위하여 더욱 努力하기를 바랍니다.

“네 始作은 微弱하였으나 네 나중은 甚히 昌大하리라”의 聖經말씀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關係者 여러분의 그간의 勞苦를 고맙게 생각하며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無窮한 前進과 平康이 있기를 祈願합니다.